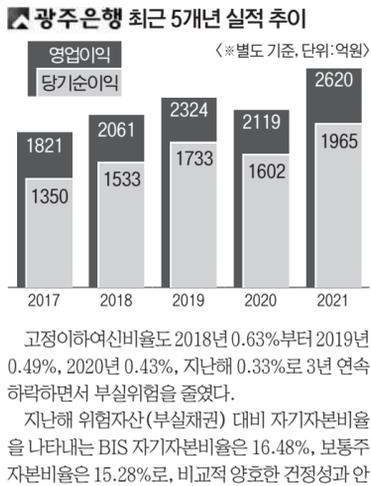


# 광주은행, 고객중심 현장경영... 지난해 순이익 '사상 최대'

순이익 1965억 전년비 22.7%↑...영업익 2620억원  
송중욱 은행장 취임 2017년 9월 이후 꾸준한 성장세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1월 기준 1조2584억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광주은행이 지난해 고객기반을 넓히고 내실성장을 거듭하면서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은 1965억원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은행 당기순이익은 송중욱 은행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1350억원에서 2018년 1533억원, 2019년 1733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1602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경

기 충격을 딛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23.7%나 증가한 262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은 1821억원(2017년)→2061억원(2018년)→2324억원(2019년)→2119억원(2020년)→2620억원(2021년)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돼왔다. 광주은행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연체율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체 비율은 0.31%로, 2017년 0.56%, 2018년 0.51%, 2019년 0.42%, 2020년 0.39% 등 최근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진 가운데 지난해에는 경기 침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 가계 부채 총량 제한 등 여러 변수가 있었다. 이 같은 경영환경 변화 속 광주은행의 질적 성장은 지역에 밀착하며 고객 중심 현장경영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성과 외에도 금융감독원 '지역 재무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금고를 전담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ESG 경영과 지역 밀착 경영을 올해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올해로 4년째 '광주-전남사랑카드'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누적 10억 3000만원을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지난해 ESG 채권 발행과 광주시 탈석탄·그린뉴딜 협약, 업무용 차량 전기·수소차로 전환 등은 대표적인 ESG 경영 사례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자리하기까지 한 걸음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민과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대표 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기반과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한 상생경영을 이어가겠다"며 "2022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디지털 경쟁력 확보,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경기회복세로 전력 판매량 3년 만에 반등...산업·주택용 ↑

주택용 3.1%·일반용 3.9% ↑  
심야 전력·가로등은 '마이너스'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전력 판매량이 3년 만에 반등했다. 심야전력과 가로등 전력을 제외하고 주택용과 산업용 등 대부분 용도별 전력 판매가 전년보다 늘었다. 14일 한국전력 '2021년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은 4만2460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지난해 전력 판매량은 전체(53만3431GWh)의 8.0%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지역 전력 판매량은 2017년 4만2246GWh에서 이듬해 4만2892GWh로 늘어난 뒤 2019년 4만 989GWh, 2020년 3만9505GWh 등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진했던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4만GWh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전력 판매량 증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이 이끌었다. 이 같은 산업용 전력 판매량 반등은 4년 만이었다. 광주-전남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016년 2만 6668GWh에서 이듬해 2만6140GWh로 소폭 늘어난 뒤 2018년 2만6107GWh, 2019년 2만4288GWh, 2020년 2만2596GWh 등으로 줄어왔다. 지난해는 2만4815GWh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광주-전남 전력 판매는 산업용 뿐만 아니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서 고르게 증가

했다. 주택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3.1% 증가한 4969GWh로 집계됐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역지침이 다소 완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7004GWh로 3.9% 늘었다. 농사용 전력 판매도 전년보다 7.7% 증가했고, 학교나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쓰는 교육용 전력은 13.6% 늘었다. 단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쓰는 심야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7.6%나 줄었다. 이와 함께 가로등 전력도 1.6%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4.7% 늘어난 53만3431GWh, 역시 3년 만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

## 전남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50% ↓...농협 전남본부, 판매 개시

사과·배·뽕은감 등 67개 품목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자체 부담비율이 늘면서 농민 자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사과, 배, 단감, 뽕은감(적과전종합위험II) 작물을 시작으로 총 67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전남도·시군 지자체 지원율은 전년 30%에서 40% 확대됐다. 국비 지원율은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농민 부담비율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전남농협은 설명했다.

보험 가입 시기는 농작물별로 다르다. 농업용 시설과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은 이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가까운 지역농협을 찾아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가입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도에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재해에 따른 농업인 손실위험이 줄어들게 됐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704.48 (-43.23)
코스닥	852.79 (-24.63)
금리(국고채 3년)	2.347 (+0.004)
환율(USD)	1191.10 (-7.40)



"봄니물로 입맛 돋우세요" 14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봄니물 첫 기획전' (~17일)에 내놓는 봄동, 섶초, 냉이, 달래 등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